

제5장

지역적 맥락에서의 아프리카 냉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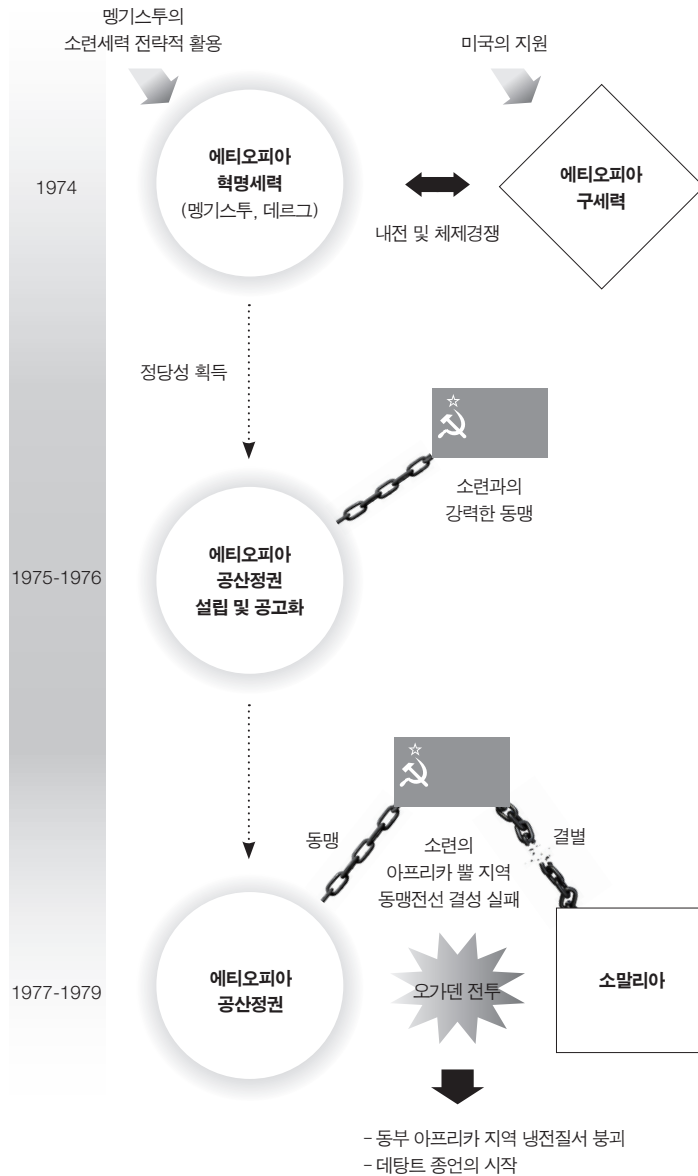
— 1970년대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화와 소련의
개입과정을 중심으로

An African Cold War in the regional context

— *A case analysis on Ethiopian Cold War Experience during
1970's.*

변웅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연구원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냉전 양상



아프리카

의 냉전은 미소 양강의 경쟁적 힘의 확산과 구조화 측면을 넘어 서구열강과의 식민지를 청산한 신생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엘리트들이 냉전논리와 전략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도구화(instrumentalization)하는 측면이 더욱 강했다. 이는 미소 양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외재적인 요인보다, 국내정치의 역학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재적 요인이 아프리카의 냉전구조와 내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방식인 냉전의 일방향의 구조적 원인(structural cause)을 분석하기보다는 미소 강대국의 영향력 확산(top down power projection)과 신생 아프리카국들의 냉전세력에 대한 전략적 이용(bottom up instrumentalization)을 역동적 상호관계성(dynamic interdependence)에 의해 형성된 행위집합체(agency)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각 행위자(actor)의 전략과 담론을 분석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아프리카의 냉전적 특성을 이데올로기 담론 활용 측면에서 점검하고 이후 가장 중요한 사례인 에티오피아의 냉전 양상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전략(bottom-up strategy)적 특징을 분석하여 소련이나 미국의 힘에 의해 제한된 행위가 아니라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냉전구조를 이용한 측면을 부각시킬 것이다.

A specific nature of the Cold War in Africa can be characterized by its dynamic interaction between US-Soviet power competition and newly born African states leaders' strategic instrumentalization of two super powers in order to achieve their own political goal in the postcolonial context. In other words, the strategic interests of African leaders were more direct causes which determined the nature of Cold War in Africa in comparison with relative influence of competition of the two super pow-

ers. To analyze and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African Cold War history one needs to focus more on dynamic inter-relations between top-down power imposition by super powers and bottoms-up strategic interactions implemented by African local actors. To do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agency which implies actors' capabilities of action and disposition to act such as discourses, norms, story etc will be mobilized as the central methodological concept. In our study here, we will analyze Ethiopia's Cold War between 1974 and 1977 to demonstrate African character of Cold War.

KEYWORDS 냉전 Cold War, 아프리카 Africa, 에티오피아 Ethiopia, 아프리카 탈 식민지시기 post-colonial period in Africa, 에이전시 agency, 상호구조화 이론 Configuration Theory

I 서론

아프리카는 미소냉전의 격전지였음은 분명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서 전략적 우선순위로 꼽히는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콩고민주공화국 내전(1960-65), 앙골라 내전(1975-88), 에티오피아 내전(1977-91), 모잠비크 내전(1977-94) 등 핵심 내전에 미국과 소련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냉전 경쟁의 확산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 지역은 미소 양강의 경쟁적 힘의 확산 측면을 넘어 서구열강과의 식민지를 청산한 신생 아프리카 국가의 정치엘리트들이 냉전논리와 전략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도구화(instrumentalization)하는 측면이 더욱 강했던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미소 양 강대국의 경쟁이라는 외재적인 요인보다, 국내정치의 역학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된 내재적 요인이 아프리카의 냉전구조와 내용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청산 이후 신생독립국을 형성하고 있던 1960년대 이후의 시기를 보면 공산주의 사상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이 아프리카 국가의 지배이데올로기로 성립된 배경들은 사실 매우 상이하다. 앙골라, 에티오피아, 모잠비크의 경우 공산주의화 맥락은 권력을 장악한 정권이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권력질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데 공산주의 이론과 담론을 핵심 도구로 사용하면서 전개되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정치적 맥락이지만 대부분 새로운 정권 창출 이후 공산주의 담론과 자유주의 담론은 폭력적으로 성취된 신

권력의 정당성을 미화하고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이어졌다. 콩고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적 담론을 쿠데타 이후 자신의 정치권력을 정당화하고 미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마다가스카르의 경우에도 단순히 군사 쿠데타로 출현한 정권이 쿠데타 후 정권의 정당화를 위하여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하였다.

즉, 아프리카에서 냉전의 양대 이데올로기들이 선택된 이유는 새로 형성된 국가권력의 공고화 및 정당화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지, 이데올로기의 실질적 해석과 실천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모잠비크의 모잠비크해방전선(FLM: Frente de Libertação de Moçambique)나 앙골라의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 Movimento Popular de Libertação de Angola) 등 민족해방전선과 에티오피아의 급진적인 군사위원회인 데르그(Derugue)¹와 같은 경우도 체계화된 이데올로기 운동이라기보다 전략적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담론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냉전시기에 미소 양 강대국이 원했던 냉전 경쟁의 논리와 아프리카 신생국의 리더들이 취했던 전략의 행위들은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파편적인 성격의 냉전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방식인 냉전의 일방향의 구조적 원인(structural cause)을 분석(Suri 2003; Hanhimaki 2000; Hanhimaki 2004; Westad 2004; Cass 2004; Nichols 2002; Garthoff 1994)하기보다는 미소 강대국의 영향력 확산(top

1 1974년부터 1987년까지 존재한 에티오피아의 군경행정관련 최고의결기구이다.

down power projection)과 신생 아프리카국들의 냉전세력에 대한 전략적 이용(bottom up instrumentalization)을 역동적 상호관계성(dynamic interdependence)에 의해 형성된 행위집합체(agency)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결정주의적인 구조주의적 시각이 아니라 각각의 행위자들의 취한 전략과 그 전략적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질문과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ooper 2002; Iliffe 1995; M'Bozolo 2004).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아프리카의 냉전적 특성을 이데올로기 담론 활용 측면에서 점검하고 이후 가장 중요한 사례인 에티오피아의 냉전양상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전략(bottom-up strategy)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탈식민지시기(postcolonial period)에 미소 냉전세력을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한 아프리카 정치인들의 전략을 분석하여 지역적인 특성이 내재된 냉전 경쟁의 양상과 논리를 역사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후기식민주의시대 아프리카 냉전의 주요 특징

1. 제국주의의 종언과 아프리카 탈식민화의 배경

1차대전 직후 중동 지역은 신생국가들로 독립이 되었으나 영국이 후원하는 반동적 군주제를 유지하면서 영국의 기존 제국주의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2차대전 이후에도 유지되는 추세였으나 이집트 혁명(1962)을 계기로 급속하게 변화하게 되어 중동과 아프

리카 대륙의 탈식민운동의 변곡점이 된다. 이집트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혼란을 틈타 자유장교단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설립했으며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사회주의 건설’ 등을 내세우며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탈식민지의 강력한 정치사회운동은 아프리카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후 중동, 아랍 지역에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각 지역에서 독립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1956년 영국령 가나, 1957년 프랑스령 기니의 식민지 청산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독립의 기운이 시작되었다. 이는 1960년대에 이르러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프랑스령 12개국을 포함하여 17개국이 독립을 성취하였다. 붓물같이 쏟아지는 1960년대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탄생은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릴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목도했다. 아프리카의 독립국들의 형성은 세계적 연대를 야기하며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하면서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변모하였다. 1955년 반둥회의와 평화 10원칙에 바탕을 둔 국제적 연대 움직임은 1961년에 베오그라드에서 제1회 비동맹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탈제국주의 시대 이후 냉전의 경쟁으로 편입되기 보다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비동맹국의 위치에서 비교적 자율성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콩고공화국, 앙골라,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 양국의 경쟁의 전장에 직접적으로 편입되었다.

2.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자유주의 및 공산주의 담론의 전략적 활용

마르크스주의가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중요한 이데올로기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는 첫째는 자본주의의 대안적 사회체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었고, 둘째는 사회주의적 모델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신생독립국가의 지도자들에게 국민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이데올로기 기제가 된 것이다.

아프리카의 몇몇 신생국가의 지도자들은 소련 정치사회경제 모델이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력한 규범적 성격(일당독재, 국가통합, 계획경제 등)은 혼돈스러운 아프리카 신생국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제라고 여겼다. 하지만 실제로는 1970년대 빈번히 일어난 아프리카 군사 쿠데타 및 폭정에 대한 지적, 정치적 정당화의 수단으로 변화한 측면이 많다(Ottaway 1986; Suri 2008).

자본주의와 미국의 ‘개발(development)’을 중심으로 한 담론의 자유주의 또한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주목하기보다 외부의 새로운 거대담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는 도구로 삼는 식으로 발전했다. 다시 말해 쿠데타로 권력을 강탈한 군부세력들은 자신이 쓰러트린 기존 정권과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면서 권력을 정당화했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였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프리카에서 이들 이데올로기들은 권력 획득이나 기존

권력 전복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담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후면지원으로 대통령이 된 콩고의 초대 대통령인 모부투(Mobutu Sese Seko)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서 자유주의 담론이나 공산주의 담론은 권력유지와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였다. 아프리카에서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의 교조화는 쿠데타를 통한 권력 성취를 정당화했고, 반대세력을 반자유주의 세력,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 제거하는 데 유용한 규범기제가 되었다.

또한 냉전 이데올로기와 미소 양 대국에 대한 의존은 새로운 아프리카 지배세력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었으며 미소 양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 그리고 물질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는 아프리카 신지배세력의 입지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III 에티오피아 혁명의 발호와 소련과의 관계정립 초기과정(1974년)

1. 멩기스투의 군사정권 설립 및 급격한 사회개혁 추진

70년대 중반 계속되는 기근으로 민심이 황제를 떠났고 얼마 후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Mengistu Haile Mariam)을 중심으로 한 군의 소장파 장교들이 1974년 9월 12일 쿠데타를 일으켜 에티오피아 왕궁을 점거하고 하이레세라시(Haile Selassie)에 황제를 폐위시켰다.

익일인 9월 13일에 아만 안돔(Aman Andom) 장군은 잠정군사행정위원회(PMAC: Provisional Military Administration Council)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테페리 벤티(Teferi Benti)를 국가원수로 임명한다. 11월 24일에 이르러는 멩기스투에 의해 에티오피아의 제정시절의 고위지도자들 60여 명이 처단되었고, 초기에 친미와 친소 사이에서 모호함을 유지하던 멩기스투는 결국 공산주의 공화정의 에티오피아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미국은 소말리아의 독재정부에 지원을 꺾어 친미 정권으로 만들었으며 에티오피아 반군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12월 12일, PMAC는 에티오피아를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합국가로 선언(사회주의 선언)한다. 이 사회주의 선언은 총 10항으로 구성되었고, 선언문의 내용은 소련이 에티오피아에 사회주의 국가 모델을 전수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에티오피아 틱뎀(Ethiopia Tikdem)'²이라는 에티오피아 제일주의 선언과 같이 민족주의 성향도 보이고 있어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적 간극을 보여 주고 있다. 각 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에티오피아는 인종(ethnic), 종교, 언어 또는 문화적 차별없는 통합을 위한 국가에 머무를 것이다.
2. 에티오피아는, 케냐, 수단 그리고 소말리아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역)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을 희망한다.

2 '에티오피아 제일주의(Ethiopia the First)'라는 뜻이다.

3. 에티오피아 혁명 ‘에티오피아 틱템’ 슬로건이 특별한 에티오피아 사회주의의 기반이 된다.
4. 모든 지방 행정 및 모든 지역 마을은 자신의 재원을 관리하고 자급자족을 실시한다.
5. ‘에티오피아 틱템’이라는 혁명 철학에 따라 큰 정당이 민족주의적 사회주의 토대에서 발견된 것이다.
6. 모든 경제는 국가의 손에 있다. 에티오피아 존재기반은 에티오피아 인민을 위한 것이며 인민이 권리의 원천이다.
7. 토지 소유권은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경작하는 자)에게만 제한된다.
8. 공업은 국가에 의해 운영된다. 가까운 장래 국유화되는 민간기업은 국가에 의한 국유화가 실시될 때까지 민간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9. 에티오피아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를 남겨 가족은 모든 외부의 영향, 불륜 그리고 패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0. 에티오피아의 현재 외교정책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정치체제는 모든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1975년 1월 1일에는 혁명위원회인 데르그는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은행, 보험사, 섬유기업, 제당기업, 정유기업 등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프랑스가 소유하고 있던 에티오피아 철도마저도 접수했다. 2월 3일에는 사회주의 선언 항목 제6, 8항을 근거로 72개의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을 국유화했다. 2월 7일 데르그는 ‘사회주의 에티오피아 경제정책선언’을 표명하고 정부와 민

간자본, 민간기업과의 합병을 발표했다. 2월 11일 이미 대통령 선언을 한 멩기스투는 PMAC의 의장에 취임하는 동시에 에티오피아 원수가 되었다. 데르그는 3월 4일에는 선언 제7항을 근거로 토지 개혁을 발표했다. 봉건적 토지 소유 시스템을 폐지하고, 교외에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국유화를 발표하였으며 정부 하부 조직으로 농업조합의 설립을 허용했다.

2. 데르그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정치규범 강화

데르그는 1976년 6월 ‘대중문제를 위한 임시 사무국(POMOA: Provisional Office for Mass Organization Affairs)’을 설립했다. 설립 목적은 대중 사회에 데르그 이념과 목적을 주입시키고 대중을 정치화(Prouty and Rosenfeld 1981, 11, 147-148)하는 것이었다. POMOA는 1976년 5월 ‘이에카티 66 이데올로기 학교’³⁾를 개교했다. 개방 학교는 POMOA 대중의 정치화에 목적을 두고 중간급의 급진적인 지도자를 입성하기 위한 기관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육하여 고급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했으며, 1979년 3월까지 약 8,000명의 간부를 배출했다. 여기서 정부는 일반대중, 군인, 노동조합지도자들 등에게 공산주의적 정신과 내용을 교육하고 의식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르포르의 연구에 의하면, 이는 소련을 모델로 한 일당독재체제를 확립하는 데 일

3 ‘이에카티 66’은 에티오피아 신연력으로 1974년 2월 9일부터 3월 9일에 해당된다. 사실상 에티오피아 혁명이 일어난 시기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데올로기를 단련하기 위한 간부 학교의 명칭으로 선정됐다.

조했다(Lefort 1983). 이처럼 초기의 양상은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그대로 원용하고 적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레니 르포르의 연구에서는 소련 모델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일당독재체제를 확립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기도 한다(Lefort 1983, 169).

3. 멩기스투 정권의 소련에 대한 구애와 소련의 비판적 판단

이렇게 1974년 9월 에티오피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선언을 한 에티오피아는 멩기스투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향한 개혁을 실시해 나갔다. 그리고 그는 1975년 2월 데르그 PMAC 의장과 국가 원수로 취임했을 무렵, 소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멩기스투는 존경하는 인물로 레닌(Vladimir Lenin)을 제시하며 이데올로기적으로 가까움을 공공연히 알리기도 했다(Prouty and Rosenfeld 1981, 11, 147-148). 하지만 이러한 친근함과 정치적 동맹성을 드러내는 발언들도 사실은 무기원조, 경제원조를 위한 제스처일 뿐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일본의 연구도 존재(토시 1999)하며 실제로 이후 공산주의가 쇠락하는 양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에티오피아 혁명에 대한 당시 소련의 평가는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74년 3월경 소련 외무장관 구로미코(Andrei Gromyko)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것을 혁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첫째, 군의 영향력이 부재하고, 이웃 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사

회주의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야 하며, 현재는 하이레세라시에 황제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멩기스투) 세력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Westad 2005, 261).

이 발언의 기록은 1974년 3월이다. 따라서 1974년 2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에티오피아 혁명의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시기 군사 반란 등 군부의 제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 시기의 에티오피아 움직임을 사회주의 혁명과 얽힌 이해 실태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소련의 구로미코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판단처럼 초기의 멩기스투 세력의 반란이 혁명으로 보일 정도는 아니었고 오히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황제와의 동맹을 유지하려는 대목을 볼 때, 이데올로기 동맹의 핵심인 '공산주의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후 멩기스투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중과 헌신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여 소련의 신뢰를 사고 동맹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초기 동맹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V 혁명 직후 소련-에티오피아 관계변화시기 (1974년-75년)

1. 멩기스투 초기정권의 사면초가적 상황과 소련의 소극적 관계설정

1974년 이후에도 에티오피아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멩기스투는 고위인사를 처형하고 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공산주의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멩기스투 역시 국가운영에 미숙함을 보였으며 제정 시절과 비교하여 경제적인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고, 여기에 에리트레아 독립 전쟁, 국교인 에티오피아 정교를 믿는 국민(약 45%)과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약 40%)의 대결, 부족 간의 내란, 지역 분쟁, 소말리아와의 전쟁, 수단과의 분쟁, 국내 정치혼란, 경제 빈곤화, 사막화 문제, 극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 문제, 에이즈 환자 폭증 등이 중첩, 국가 역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며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소련의 데르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냉정했다. 에티오피아 혁명 직후 1974년 9월 21일부터 22일 사이에 데르그는 러시아 대사관의 인사들과 첫 회담을 열고 혁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데르그는 혁명 초기 소련의 냉랭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다. 소련 대사관의 참사관 세르게이 시니스찐(Sergei Sinitin)와 데르그의 대리인인 에니오 페레다(Enio Fereda)와의 회담에서는 페레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데르그 구성원 대부분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데르그 중에는 보수적인 사람도, 본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진짜 신념을 숨기는 사람도 있다. 이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원칙적인 이유나 전략상으로만 에티오피아 국내의 빈부 격차 해소나 에티오피아 경제 사회 발전의 과정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데르그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도 구체적인 정치 프로그램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다(Tiruneh 1993, 262).

연이은 회담에서 빅토르 로마슈킨(Viktor Romashkin) 소련장관이 참석하여 멩기스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사는 등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긴 하였지만(Tiruneh 1993, 262) 소련 대사관은 여전히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모스크바에 보낸 '1974년 연례 보고서'에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변혁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반봉건주의적 혁명"이라고 규정하였다. 멩기스투에 대해서는 "쁘띠부르주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며, 에티오피아의 국내 정세에 대해서는 군부장교 움직임만을 보고 혁명세력이 승리하였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다른 주변국가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 성향이나 뿌띠부르주아적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2. 미국을 적대적으로 활용한 멩기스투의 대소련 구애전략

혁명 초기의 상황은 멩기스투가 이끄는 데르그의 입지가 매우 좁

고, 권력을 확고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혁명정부는 소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1975년 1월 PMAC의 의장인 테페리 소련 대사와의 대담 중에 구체적으로 군사원조에 대한 논의와 요청을 시작한다. 테페리는 군사원조가 절실함을 설명하면서 당시 미국이 지원하던 소말리아와 에리트레아 반란에 대처해서 영토보전을 해야 하고 미국의 방해로 저지해야만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소련을 설득한다(Tiruneh 1993, 263).

그러나 1975년 1월에는 이미 소련이 소말리아에 군사를 지원하는 중이었으며, 에티오피아 혁명 이후 에티오피아가 사회주의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 1월 단계에서 미국은 에티오피아에 군사원조를 지속하고 있었다. 때문에 “미국이 에티오피아 혁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미국 측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화를 이유로 미국이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프레드 할리데이(Fred Halliday)의 연구는 1974년부터 76년까지 미국의 대(對)에티오피아 군사원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Halliday 1977, 16). 물론 그 군사원조는 데구루의 조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체제의 엘리트들을 원조하는 데 쓰였기 때문에 데르그 세력에게 저지해야 할 협력관계였다.

에티오피아의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일단 에티오피아와 관계가 나쁜 소말리아와 에리트리아 지역이 미국의 적극적인 공세로 미국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사회주의 성향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구애를 피는 전략은 소련으로 하여금 매우 곤란한 상황을 연출

시켰다. 소련이 소말리아 주변지역을 친소련 공산주의 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에티오피아와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했으며, 이에 실패할 경우 이 지역의 에티오피아에 적대적인 친소세력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소련의 신중한 입장은 이후 여러 회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1975년 2월 11일에 열린 소련 대사와 PMAC 지도자 간의 회담에서 전달된 답변을 보면, 소련에 대한 요청에 매우 조심스럽게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티오피아 인민들이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에 소련 인민들은 공감한다. 에티오피아와 소련 양국 간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PMAC 대표단을 모스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지금은 시기상조이다. 군사 협력의 요청에 관해서는 응답할 수 있도록 아디스 아바바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기로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사이의 갈등은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것임을 강하게 표명하는 바이다(Westad 2005, 263).

그렇다면 에티오피아가 왜 소련에 적극 공세를 피는 전략을 펼쳤을까? 에드먼드 켈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소련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에티오피아 국내에서 데르그 지지자들에게 데르그에 의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즉, 국가 통제주의적 개발전략에 대해 대외적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구체제 엘리트들의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던 것이다(Westad 2005, 196-201). 결국 이런 전략적 논리를 좀 더 확장시켜보면 데르그가 에티오피아를

장악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만약 이런 새로운 정치이데올로기를 종주국인 소련에게 인정받고 지원을 받는다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제 엘리트들의 파트너인 미국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정당성과 영향력을 상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련에게 미국의 위협을 최대위협으로 설득함으로써 소련을 에티오피아에 끌어들이려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소련과 미국의 조심스런 전략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데르그를 중심으로 한 신혁명세력의 에티오피아는 냉전적 분위기와 세력 간의 논리를 자신의 정당성 확보와 권력강화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V 소련-에티오피아 관계강화시기(1975-76)와 아프리카 뿔 지역질서의 붕괴(1977)

1. 소련의 아프리카 뿔 지역에 대한 인식변화

에티오피아의 적극적인 구애와 아프리카 뿔(the Horn of Africa) 지역에서의 미소냉전의 각축전, 그리고 중국의 심상치 않은 아프리카 확장 기운이 감지되면 시기에, 1976년 초 라타노후(Anatolii Ratanov) 대사와 빅토르(Viktor Romanshkin)는 모스크바에 대에티오피아 관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에티오피아의 전략적 활용 가치는 소련의 해당 지역(에티오피아, 소

말리아, 수단)에서 군사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홍해에 붉은 군대(Red Navy)가 전개하는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것입니다. 만약 에티오피아 지도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증대에 있어 일본은 큰 불안 요소로 남게 됩니다. 단순히 소말리아 한 나라와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Westad 2005, 268).

이 메시지 속에서 라타노후는 모스크바를 향해 소련에게 아프리카 각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현재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이 이 지역에 진출해 올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불과 1-2년 전의 소련의 상황인식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련이 아프리카 뿔 지역의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등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전략적 요충지로 파악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지역적(regional)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멩기스투 정권 성격에 대한 모호성을 이유로 적극적이지 못했던 소련이 에티오피아의 집요한 구애와 설득을 통해 미국의 세력확장과 지역의 반공산화라는 위기인식을 더욱 강화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역동적 흐름이 냉전의 강대국과 약소국의 수직하강적 영향이라는 구조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에티오피아 신정부가 냉전이라는 맥락 위에서 미소의 경쟁과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며 소련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아프리카 냉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에티오피아의 대소련 이데올로기 협력강화

혁명 이후 멩기스투는 라타노후 대사와의 회담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젊은 에티오피아인들에게 필요하며 모스크바에 교육생들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강력하게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이 소련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요구했다(Westad 2005, 269).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한 동조전략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1976년 4월 20일에 멩기스투가 스스로 제안하고 발표한 ‘에티오피아 민족민주혁명 요강(PNDR: Programme of 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을 향한 이와 같은 멩기스투의 전략은 초기 에티오피아 우선주의라는 민족주의 성향을 모두 배제한 더 적극적인 이데올로기 공세인 셈이다. 켈러의 연구는 1975년 ‘사회주의 선언’과 이번 요강을 비교하는데 소련식 과학적 사회주의의 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이 근간이 되며 에티오피아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고 분석하고 있으며(Keller 1988, 197), 이에 대한 소련의 반응도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76년 가을, 소련 대사관에서 모스크바 에티오피아 민족민주혁명 요강(PNDR)에 관한 소련 대사관의 평가 레포트가 보고되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PNDR의 중요한 점은 PMAC이 군, 경찰, 정치 제도, 공장 그리고 대

규모 농장에게까지 과학적 사회주의 이론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소련)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에티오피아에 미쳐서 사회주의의 기초를 에티오피아에서 만들어 낸 것이다(Westad 2005, 270).

1976년 12월 14일, 마침내 에티오피아와 소련 간 군사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었다. 체결에 앞서 소련 대사관이 모스크바에 보내는 보고서에서 더 이상 에티오피아에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을 연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련과 에티오피아의 협정체결의 결과는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대한 향후 소련의 외교, 특히 소련과 소말리아 관계 재검토 필요성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냉전 전반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소련과 소말리아의 관계악화 시작

1969년 소말리아에서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Mohammed Siad Barre) 장군이 세르마르케 대통령을 암살하고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이후 시아드 바레는 친족 중심으로 권력을 운영하면서 22년 동안 장기집권을 해 나갔으며,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대(大)소말리아주의를 내세워 국내의 정치적 관심을 에티오피아 오가덴(Ogaden) 지역으로 옮겼다. 이곳은 미국과의 경쟁지역이기 때문에 소말리아는 소련의 지원을 받는 전략적인 친소국가로 발전해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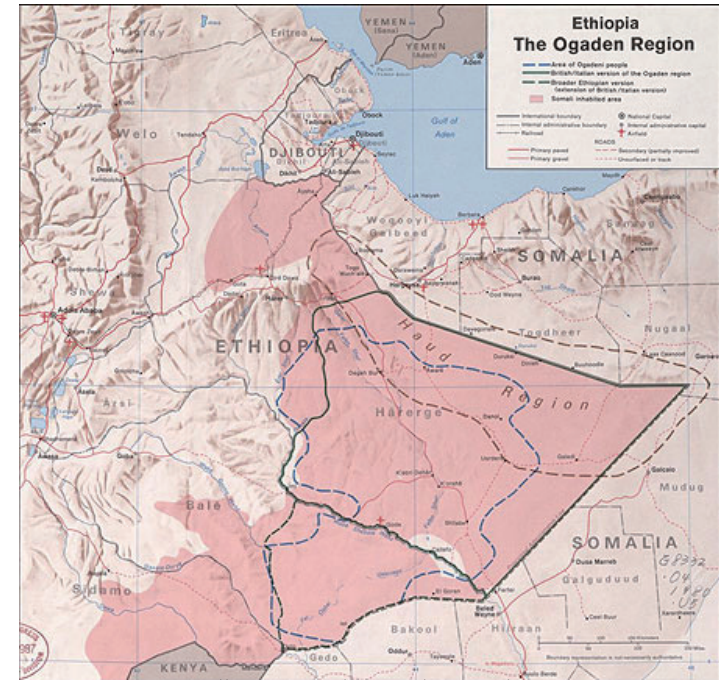
한편 에티오피아는 1974년 에티오피아 혁명 이후, 외면적으로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면서 소련과 접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소련과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외부, 특히 오가덴 지역의 소말리아군과 긴장적인 대치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군사지원이 절실한 때이기도 했다. 또한 구체제가 기대고 있던 미국의 원조에서 빨리 자립하기 위해 조속히 소련으로부터 군사지원을 받아 에티오피아의 사회주의화를 완성해야 했다.

같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두 나라인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에서 쉽게 통합될 줄 알았던 소련의 초기의 '마르크스주의 연방 구상'은 양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시아드 바레는 소련이 에티오피아와 군사협정을 맺자 소련의 지역 마르크스 연방계획에서 탈퇴하고, 마침내 에티오피아의 오가덴을 침공하면서 소련과의 관계도 종언하기에 이른다.

4. 오가덴 전투와 데탕트 붕괴의 서막

에티오피아와 소련의 새롭게 형성된 밀월관계로 인해 소련의 기대와는 달리 소말리아와의 단교 및 분쟁의 촉발로 인해 기존의 소련 지역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약화되었다. 이 상황을 틈타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가 이끄는 좌익성향 반군과 에리트레아 독립군, 그리고 보수성향 반군과 오로모족과 소말리족, 아파르족 등의 반군(미국의 후면지원을 받음)은 쿠바나 소련, 북한 등의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 공산 정권과 맞서 싸웠으며, 이 과정에서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인 오가덴에서 최대 140만 명이 사망하는 유혈극이 벌어진다. 오가덴 지역 전투는 미소 데탕트



출처: 미국 중앙 정보국,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77-1980/horn-of-africa>.

그림 1. 오가덴 지역

트 시기의 종언을 알리는 시작이었고, 소련의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의 실패는 (전)자이르, 예멘, 쿠바 등으로 이어져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의 촉발제가 되었다.

시아드 바레가 오가덴 지역을 침공한 이유는 국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였으며 에티오피아 외곽 지역인 오가덴의 분쟁상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는 기존 세력에 대항하여 멩기스투가 여전히 리더십을 향해 정치권력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고, 오가덴 지역에서는 에리트레아

와 소말리아의 소수민족들이 지속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아드 바레가 이끄는 소말리아군이 1977년 7월 13일 에티오피아 주요 도시를 향한 첫 공격을 감행했다. 소련은 군사협정을 맺고 있던 에티오피아를 지원하기 위해 군사장비, 소모품, 군대를 대규모 파병했으며 앙골라에 머물던 쿠바의 군대 및 군 자원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이러한 큰 규모의 소련과 쿠바의 개입에 매우 놀랐고, 당시의 카터 행정부(Jimmy Carter)는 앙골라 사태에서처럼 쿠바와 소련이 대규모 파병과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다. 카터 행정부의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구성원은 소련의 개입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두고 두 가지 진영으로 나뉘었다. 안보보좌관인 브레진스키(Zbigniew Kazimierz Brzezinski)를 중심으로 한 진영은 미국의 대담한 대응을 주장하고, 소련의 아프리카 뿔 지역 개입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무 장관 벤스(Cyrus Vance)가 이끄는 NSC의 또 다른 파벌은, 소련의 현 군사행위가 냉전의 구조를 저해할 만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 때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무력대응은 미소 데탕트 및 균형관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을 지적했다(Garthoff 1994).

벤스와 브레진스키의 입장 차는 더욱 커지면서 브레진스키는 의회에서 비준되어야 할 소련과의 '전략 무기 제한 협상(SALT: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의결에 소련침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소련의 의도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였고, 소련 역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

지 못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결국 카터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1979년에 '전략 무기 제한 협상 II(SALT II)'를 탈퇴하기에 이르렀고, 이로서 데탕트의 시기는 종언되었다.

VI 결론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던 나라이지만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지배했던 아프리카 대륙 전반적인 탈식민지화의 과정과 냉전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내부의 세력들이 수동적으로만 새로운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지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에티오피아 내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멩기스투 중심의 데르그가 소련에 대해 취한 전략적 접근은 단순히 그들이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동조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구 왕권세력과 기존 엘리트 및 이에 동조하는 미국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냉전이라는 구조에 의해 형성된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멩기스투나 혁명세력에겐 복종해야 하는 구조적 힘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혁명을 완수하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기회와 외부 정치기제로 작용한 측면을 알 수 있다.

소련이 혁명 초기 에티오피아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르그의 지속적인 설득과 사회주의 표방으로 소련과 에티

오피아는 동맹을 맺을 수 있었으며, 소련을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멩기스투는 명실공히 에티오피아에서 실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이 원했던 동아프리카의 마르크스주의 지역동맹은 실패로 돌아갔고,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사이의 내재된 분쟁이 오가덴 분쟁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소련의 냉전패권을 상실하는 시발점이 되어 버리고 만다. 결국 강대국이 형성한 구조에서 보이지 않던 약소국가들의 전략과, 이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한 국가 이외의 미소행위자들(정치리더, 혁명세력, 신생정당 등)의 행위를 면밀히 관찰하고 그 행위자들이 주어진 조건(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가 있다.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등이 역사적으로 서로 얽힌 아프리카 뿔 지역의 냉전적 상황은 다른 지역과 매우 상이한 전개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의 오랜 지배하에 있었던 앙골라, 네덜란드 후손들인 아프리카너의 지배와 차별 하에 있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콩고 등은 각각의 냉전의 지역적 구조와 내용이 상이하다. 향후 이들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비교연구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 냉전구조의 일반적 구조와 개별적 내용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Cooper, Frederick. 2002. *Africa since 1940: The Past of the Presen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seks, D. J. 1975. "Soviet Economic Aid to Africa 1959-1972: An Overview." in Warren Weinstein (ed.). *Chinese and Soviet Aid to Africa*. New York: Praegar.
- Garthoff, Raymond L. 1994. *Détente and Confrontation: American-Soviet Relations from Nixon to Reagan Revised Edi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 Halliday, Fred. 1977. "US Policy in the Horn : Aboulia or Proxy Intervention?"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No. 10, September-December.
- Hanhimaki, Jussi and Odd Arne Westad (ed.). 2000. "Ironies and Turning Points: Détente in Perspective." *Reviewing the Cold War: Approaches, Interpretations, Theory*. London, Portland, OR: F. Cass.
- _____. 2004. *The Flawed Architect: Henry Kissing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Iliffe, John. 1995. *Africans: The History of a Continent*. Cambridge,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er, Edmond J. 1988. *ReVolutionary Ethiopia: From Empire to People 's Republic*. Bloomington: Indiana UP.
- Leffler, Melvyn P. and Odd Arne Westad, eds. 2010.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 2-3. Ending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fort, Reni. 1983. *Ethiopia : An Heretical ReVolution?* London: Zed Press.
- M'Bocolo, Elikia. 2004. *Afrique noire, Histoire et civilisations. Du xxe siècle à nos jours*, coéd. Paris: Hatier/AUF.
- M'Bocolo, Elikia., Philippe Sqinteny, Alain Ferrari (coéd). 2010. *Afrique(s), Une autre histoire du XXe siècle*. France 5 and INA.
- Nichols, T. M. 2002. "Carter and the Soviets: The Origins of the US Return to a Strategy of Confrontation." *Diplomacy & Statecraft*, Vol. 13, No. 2 (June), 21-42.
- Ottaway, Marina and David Ottaway. 1986. *Afrocommunism*. New York: Holmes & Meier.
- Prouty, Chris and Eugene Rosenfeld. 1981. *Historical Dictionary of Ethiopia*. London: Scarecrow.
- Suri, Jeremi. 2008 *Power and Protest Global ReVolution and rise of Déten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stad, Odd Arne. 2005. *The Global Cold War Third world intervention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Cambridge: Cambridge UP
Westad, Odd Arne and Olav Njolstad (ed.). 2004. "Reagan's Anti-ReVolutionary
Offensive in the Third World." *The Last Decade of the Cold War*. London,
New York : Frank Cass.

岡倉登志, 1999. 『エチオピアの歴史 “シェバの女王の国” から“赤い帝国” 崩壊まで』,
明石書店.

필자 소개

변웅 Byun, Oung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동경대학교 정치학 박사

논저 "Construire un monde par la culture-langue",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in Ethiopia and Kenya: Strategies for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nalysis of China and Japan's
Strategies in Africa and Implications for the Republic of Korea".

이메일 byun.oung@gmail.com